

# 무주군보건의료원 3개과 신설

### 정형외과·소아청소년과·재활의학과 신규 공보의 5명 배치

무주군보건의료원에 정형외과와 소아청소년과, 재활의학과 과목이 신설된다. 진료과목 변경은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의 복무 만료(내과, 산부인과)와 신규 배치(정형외과, 소아청소년과)에 따른 것으로, 무주군에는 올해 정형외과와 소아청소년과 등 총 4명의 전문의와 치과 2명, 한의과 5명, 일반의 6명, 인턴 4명 등 총 21명의 공보의가 진료를 본다.

무주군보건의료원은 외과(원장)와 정형외과, 소아청소년과, 재활의학과, 통합진료 등 6개 과목에 대한 외래 진료를 하게 되며 응급실에는 4명의 공보의를 배치해 24시간 교대근무를 진행한다. 이외 3명은 지역보건과 구강보건, 한방보건사업에 배치해 관련 업무를 추진할 예정이다.

정형외과(신설)에서는 노인성 퇴행 질환과 근골격계 질환 및 골다공증에 관한 진료를 보며 소아청소년과(신설)에서는 소아 관련 질환과 영유아 예방접종·영유아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재활의학과(신설)에서는 뇌질환과 손상재활, 통증 및 산업재해 등에 관한 진료를 보며 재활진료실에서는 치매환자 관리 및 약 처방 등을 진행하며 월 2회 응급실을 지원한다. 기존에 진료를 보던 내과는 공보의 복무가 만료됨에 따라 통합진료실과 재활의학과 외과에서 진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무풍과 설천, 적상, 안성, 부남 보건지소에 의과와 한의과 각 1명씩 9명이 배치돼 근무를 하게 된다.

무주군 보건의료원 조수현 원장은 "새로운 인력들이 배치되고 진료과목도 신설되는 등 변화가 있는 만큼 주민들이 믿고 이용하고 찾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다만 전문의가 배치되지 않은 내과에 대해서는 3개 과에서 분산 진료하되 내과적인 전문소견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근 병원으로 의뢰하는 등 진료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군은 공보의들의 직무 만족도를 높이는 동시에 환자들의 진료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올해의 베스트 공보의를 선정해 배낭여행 기회를 제공하는 등 변화를 시도할 방침이어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 제7회 무주산골영화제 배우 특집 프로그램 '넥스트 액터' 신설

### 첫 주인공에 영화 '동주' 주연배우 박정민 선정

초여름 속 영화로 스며드는 낭만 영화제, 제7회 무주산골영화제가 한국 영화를 이끌어 갈 차세대 배우 1인을 선정해 집중 조명하는 배우 특집 프로그램 '넥스트 액터 NEXT ACTOR'를 신설하여 선보인다.

다양한 관객과 소통하면서도 영화제로서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새롭게 시작하는 본 프로그램은 배우에 대해 연구하고 기록하기 위해 설립된 국내 최초 배우 전문 연구소 '백은하 배우연구소(소장 백은하)'와 공동 기획으로 진행한다. 자기만의 색깔을 분명히 드러내면서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는 잠재력 높은 배우 한 명을 매년 선정해 그의 연기세계를 입체적이고 집중적으로 조명할 예정이다. 2019년 무주산골영화제 '넥스트 액터'의 첫 번째 주인공은 단편영화부터 상업영화까지 자신만의 색깔로 폭넓은 연기를 보여 주며 꾸준히 필모그래피를 쌓아오고 있는 배우 박정민이다.

2010년 영화 <파수꾼>에서 백희준 역을 맡아 강렬한 인상을 남긴 박정민은 <전설의 주먹>(2012), <들개>(2013), <오피스>(2014) 등 많은 영화에서 주·조연을 가리지 않고 연기 활동을 펼쳐오다 2015년 <동주>에서 독립운동가 송몽규 역을 열연해 청룡영화상 신인남우상과 백상예술대상 영화부문 신인연기상 등 무려 6개의 상을 휩쓸며 연기력을 인정받았다. 이후 총무로 대세 배우 반열에 오른 그는 영화 <그것이 내 세상>(2017)에서 천재 피아니스트, <변산>(2017)에서는 무명 래퍼, 최근 개봉한 <사바하>(2018)에선 미스터리한 정비공으로 분해 인상깊은 연기로 평단과 대중의 호평을 받았다. 올해 2월에는 영화 <타짜>의 3번째 시리즈인 <타짜: 원 아이드>를 맡아 활약을 마쳤으며 현재 정해진, 마동석과 함께 영화 <글로리 데이>(2015) 최정열 감독의 신작 <시동>을 촬영하고 있다.

이번 무주산골영화제에서 가장 새롭게 구성되어 있다. 제7회 무주산골영화제의 전체 프로그램은 오는 4월 말 공개될 예정이다. 올해 무주산골영화제는 6월 5일(수)부터 9일(일)까지 5일간 전라북도 무주군 일대에서 열린다. /무주=전문선 기자



이번 무주산골영화제에서 가장 새롭게 구성되어 있다. 제7회 무주산골영화제의 전체 프로그램은 오는 4월 말 공개될 예정이다. 올해 무주산골영화제는 6월 5일(수)부터 9일(일)까지 5일간 전라북도 무주군 일대에서 열린다. /무주=전문선 기자

# 지역 매아리

## 진안군, 풍수해보험 가입 독려

진안군은 자연재해로부터 군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풍수해보험 가입 확대에 나섰다.

풍수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주택과 온실이 피해를 입었을 때 최대 90%까지 보상해 주는 정책보험으로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가 권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며 주민 스스로 대처하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다.

대상재해는 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 등 8개 유형이며, 보험가입 대상시설은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이다.

진안군민이면 누구나 가입 가능하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보험료의 70%에서 80%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안병용 안전재난과장은 "자연재해 발생빈도가 여름철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여름철 이전에 풍수해보험 가입이 필요하다"며 "재해 발생 시 군민들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가입을 적극 권장할 방침이며, 자연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문의는 진안군청 안전재난과 또는 각 읍면사무소로 하면 된다. /진안=우태만 기자

# '안전한 장수 만들기' 군민모두 한 뜻

## 국민안전의날 안전장수 다짐대회 성료

장수군은 16일 군민회관에서 장영수 군수, 김종문 의장, 기관장, 민간단체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회 국민안전의 날 기념 안전장수 다짐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안전무시 7대 관행 근절 동영상 상영, 인사발씀, 국민안전

현장 낭독, 교통안전 교육, 안전다짐 결의대회, 안전홍보 캠페인 순으로 진행됐다.

캠페인은 소방시설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불법주차 근절을 위한 '안전을 위해 여기는 꼭 비워주세요!'라는 주제로 실시됐다.

장영수 군수는 대회사로 통해 "이번 안전다짐대회를 계기로 불법주차 4개 구역만이라도 변화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나부터 바꾸자는 생각으로 안전문화 확산에 군민모두가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장수군은 4월 22일부터 불법주차 절대금지 구역 10개소에 대한 안전신문고 앱 신고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 진안, 100일 국민안전 실천 결의대회

## 안전문화 캠페인도 전개

진안군은 16일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 근절 100일 국민안전 실천 결의대회를 비롯한 안전문화 캠페인을 군청 강당에서 전개했다.

이날 행사는 최성용 부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군부대, 의용소방대, 자율방재단, 적십자사, 안전보안관 등 기관·사회단체 임직원 등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안전의식 제고와 참여 분위기를 조성했다.

다짐대회는 반드시 바꿔야 할 생활 속 고질적인 안전무시 7대 관행을 100일(4. 16~7. 24) 동안 집중적으로 근절하여 실제적으로 변화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마련됐다.

7개 안전무시 관행은 △불법주차, △비상구 폐쇄 및 물건 적치, △과

속·과적운전, △안전띠 미착용, △건설풍차 보호구 미착용, △등산 시 화기·인화물질소지, △구명조끼 미착용이다.

이번 다짐대회에서는 군민을 대표하여 안전재난과 김용훈, 박운진 주무관이 안전관리 현장을 낭독하며 안전한 진안 만들기를 다짐했다.

또한 안전실천운동 동영상 시청 후 진안 터미널과 시장을 중심으로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을 벌였다.

최성용 부군수는 "오늘을 계기로 우리 스스로가 불법 행위에 대해 한번 더 생각하고 실천하면 안전무시 관행이 점진적으로 사라질 것"이라며 "군민 모두가 함께 참여하여 안전무시 관행을 개선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 무주군-한국여행업협회 국내외 관광객 유치 MOU

무주군이 국내외의 관광객 유치를 위해 16일 한국여행업협회와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서울 마포구에 소재해 있는 한국여행업협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이날 협약식에는 황인홍 군수를 비롯한 무주군 관계자들과 오창희 회장 등 한국여행업협회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무주군과 한국여행업협회에서는 △관광홍보 및 공동 마케팅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 △관련 사업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 그리고 △국내외의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 등을 약속했다.

이 자리에서 황인홍 군수는 "청정한 자연과 맑은 공기, 아름다운 명소들을



무주군이 국내외의 관광객 유치를 위해 16일 한국여행업협회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토대로 무주가 세계적인 으뜸 관광지로 거듭나길 바란다"라며 "국내외의 여행사와 항공사, 외국 관광청 등 다수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는 한국여행업

협회와 맞잡은 손이 관광 무주의 명성을 회복시켜줄 것으로 믿는다"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 진안, 100일 국민안전 실천 결의대회

## 안전문화 캠페인도 전개

진안군은 16일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 근절 100일 국민안전 실천 결의대회를 비롯한 안전문화 캠페인을 군청 강당에서 전개했다.

이날 행사는 최성용 부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군부대, 의용소방대, 자율방재단, 적십자사, 안전보안관 등 기관·사회단체 임직원 등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안전의식 제고와 참여 분위기를 조성했다.

다짐대회는 반드시 바꿔야 할 생활 속 고질적인 안전무시 7대 관행을 100일(4. 16~7. 24) 동안 집중적으로 근절하여 실제적으로 변화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마련됐다.

7개 안전무시 관행은 △불법주차, △비상구 폐쇄 및 물건 적치, △과

속·과적운전, △안전띠 미착용, △건설풍차 보호구 미착용, △등산 시 화기·인화물질소지, △구명조끼 미착용이다.

이번 다짐대회에서는 군민을 대표하여 안전재난과 김용훈, 박운진 주무관이 안전관리 현장을 낭독하며 안전한 진안 만들기를 다짐했다.

또한 안전실천운동 동영상 시청 후 진안 터미널과 시장을 중심으로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을 벌였다.

최성용 부군수는 "오늘을 계기로 우리 스스로가 불법 행위에 대해 한번 더 생각하고 실천하면 안전무시 관행이 점진적으로 사라질 것"이라며 "군민 모두가 함께 참여하여 안전무시 관행을 개선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 장수문화원 지방문화원 원천콘텐츠 발굴지원 사업 선정

장수문화원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원연합회가 추진하는 2019년 지방문화원 원천콘텐츠발굴지원 공모사업에 '장수깃절놀이 공연 콘텐츠 개발과 영상콘텐츠 제작 사업'으로 선정되어 사업비 2500만원을 지원 받는다.

이번 공모사업은 그동안 지방문화원이 수집, 발굴해 온 지역문화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지역을 대표할 미발굴 향토자료와 신규 콘텐츠를 발굴하고 활용하기 위해 진행된 것으로 장수문화원에서는 일반콘텐츠 개발 사업에 선정되었다.

장수문화원에서는 장수깃절놀이 복원 증진사업으로 깃절놀이를 복원하여 지역의 대표 전통놀이 행사로 재현을 통해 지역 축제 때마다 공연을 선보였는데 공모사업에서는 장수깃절놀이 조사 자료를 전자책자(e-book)발간과 공연 영상 콘텐츠로 개발, 제작하여 우리지역의 전통문화를 알리고 보존하고자 지원하게 되었다.

특히 장수깃절놀이는 2018년도 장수군 무형문화재 제1호인 장수향토문화 유산으로 지정되었으며, 7개월·면 지역주민들 참여로 이루어진 대표적인 전통놀이 행사이기에 지역문화의 위상을 고취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장수=고관호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 착한신고

##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